

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

물음 '2시간 10분대의 마라톤 선수' 또는 '아침 9시대의 교통 상황' 등에서 시간 폭을 나타내는 '대'는 한자로는 '代/臺/帶' 가운데 어느 것입니까?

(이상규,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)

답 흔히 쓰는 말하면서도 주의 깊게 살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'-臺'가 맞습니다. 우선 몇 가지 사전에서 관련 있는 부분을 모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대(代)(명) 1(자립) ① 이어 내려오는 집안의 계통. || ~를 잇다/ ~가 끊기다. ② 이어져 내려오는 종족의 한 단계. 가령, 부모와 자식은 1대, 조부모와 손자는 2대의 차가 있음. || 그의 사업은 손자의 ~에 가서야 결실을 보았다. ③ [era](지) 지질 시대의 구분 단위 중 가장 넓은 단위. 고생대·중생대·신생대 따위. 2 (의존) ① 10, 20, 30, ... 등의 아래에 쓰여, 10살에서 19살, 20살에서 29살, 30살에서 39살까지의 연령층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. || 10~ 소녀/60~ 노인. ② 이어져 내려오는 종족의 단계를 단위로 세는 말. || 이 도자기는 3~째 가보로 내려오고 있다.

-대(代)(접미) '대금(代金)'의 뜻을 나타내는 말. || 신문~/책~/식사~.

대(臺)(명) 1(자립) ① 높이 쌓아 사방을 볼 수 있게 만든 곳. || 전망~/첨성~/~/를 쌓다. ② 물건을 받치거나 올려 놓는 물건의 총칭. || 촛~. 2 (의존)

차·기계 따위를 셀 때 쓰는 말. || 버스 두 ~/마침 택시 한 ~가 다가오고 있었다.

-대(臺)(접미) 수·헛수·액수 등의 말에 덧붙여, 그 대강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. || 만 원~로 가격 인하./이제 그는 3할~ 타자로서의 연봉 대우를 받게 되었다./특점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중상위권을 비롯한 각 특점~에서 수험생들은 모두 대학별 지원에 커다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-대(帶)(접미)(일부 명사 뒤에 붙어) ① '띠'를 나타내는 말. || 압박~. ② '띠 모양의 길게 이어진 지대'를 나타내는 말. || 녹지~/무풍~/아열~/화산~.

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수 개념과 관계 없는 '帶'는 일단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수 개념 다음에는 '代'와 '臺'가 올 수 있는데 '代(代)'는 그 의미와 용법이 주로 세대의 개념을 나타낼 경우나 10대, 20대, 30대 등처럼 나이를 10살 단위로 끊어서 일컬을 경우로 그 쓰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이에 비하여 '臺(대)'는 버스, 자동차, 재봉틀 등을 세는 수량 단위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 또 돈의 액수, 어떤 수를 100을 기준으로 헤아리는 백분율, 성적 평가의 소점 등에 붙는 접미사로도 두루 쓰입니다. 이로 미루어 보아 '2시간 10분대'나 '아침 9시대'의 '대'는 '-臺'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. 참고로 '代(대)'의 뜻풀이에서 지질 시대의 구분 단위인 고생대, 중생대, 신생대 등의 '代'와 10대, 20대, 30대 등의 '代(대)'를 접미사로 처리한 사전이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. (전수태)

㉠ 신문의 경제면에서 몇 '퍼센트(%)' 증가했다 또는 몇 '퍼센트(%) 포인트' 증가했다는 등의 말을 대하게 됩니다. 이는 서로 같은 의미인지요? 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?

(한명림,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)

㉡ 퍼센트(%)와 퍼센트(%) 포인트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. 몇 퍼센트(%) 증가했다는 것은 기존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수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고 몇 퍼센트(%)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은 기존에 제시된 퍼센트

(%)가 숫자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. 1999년 4월 23일의 조선문에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.

“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·4분기(1~3월) 중 국산 담배 판매량은 8억 8천1백만 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억 3천1백만 갑에 비해 22.1% 줄었으나 외국산 담배는 5천2백만 갑에서 5천5백만 갑으로 5.7% 증가했다.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은 5.9%로 작년 평균 4.9%에 비해 1.0%포인트 상승했다.”

여기에서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만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. 5천2백만 갑이던 것이 5천5백만 갑이 되었으므로 3백만 갑이 증가한 것입니다. 이 3백만 갑이 5천2백만 갑을 기준으로 할 때 5.7%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. 이 5천2백만 갑은 전체 담배 소비량의 4.9%에 해당하였는데 3백만 갑(5.7%)이 증가하여 5천5백만 갑이 됨으로써 5.9%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전체적으로 1.0% 증가한 셈인데 이를 1.0%포인트 상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

쉽게 말씀 드려서 40%만큼 올라 있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다시 올라 60%만큼 오른 셈이 되었다면 이 물건의 가격은 %로는 50% 오른 것이고 %포인트로는 20%포인트 오른 것입니다. 또, 50%만큼 진척되어 있는 어떤 건축 공사가 60%로 변화되었다면 %로는 20% 더 진척된 것이고 %포인트로는 10%포인트 더 진척된 것입니다.

그러므로 %는 100% 안에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한 변화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고 %포인트는 백분율이 아니라 기준에 제시된 퍼센트 숫자에 비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한 수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(전수태)

물음 “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/내디뎠다”에서 어떤 것이 옳습니까?

(박지연,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)

답 문의하신 내용은 본말과 준말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활용을 달리 한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.

'내디였다/내딤었다'는 그 기본형을 '내디디다/내딤다'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두 말은 본말과 준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, 표준어 규정에서는 본말과 준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둘 다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. 그러나 본말과 준말의 쓰임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.

'내디디다/내딤다'는 본말이 줄어들면서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. 즉 본말의 어간은 모음으로 끝나는 데에 비하여 준말은 자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 본말과 준말은 어미가 연결될 때 차이를 보입니다('가지다/갓다'도 같은 경우입니다).

	디디다/딤다	가지다/갓다
-고	디디고/딤고	가지고/갓고
-는	디디는/딤는	가지는/갓는
-(으)니	디디니/*딤으니	가지니/*갓으니
-(으)ㄴ	디딘/*딤은	가진/*갓은
-어/아	디디어(디더)/*딤어	가지어(가져)/*갓아

위 표에서와 같이 본말인 '디디다, 가지다'에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으나, 준말인 '딤다, 갓다'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은 붙을 수 없습니다. 표준어 규정에서 '*딤어[디더], *딤으니[디드니], *딤은[디든], *딤었다[디덜따]'와 같이 소리나는 말들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(표준어 규정 제 16항).

이와 같이 준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수 없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습니다.

	머무르다/머물다	서두르다/서둘다	건드리다/건들다
-고	머무르고/머물고	서두르고/서둘고	건드리고/건들고
-는	머무르는/머무는	서두르는/서두는	건드리는/건드는
-(으)니	머무르니/머무니	서두르니/서두니	건드리니/건드니
-(으)ㄴ	머무른/머문	서두른/서둔	건드린/건든
-어	머물러/*머물어	서둘러/*서둘어	건드리어/*건들어

'머무르다'의 준말인 '머물다'는 '딤다'와는 달리 '머무는, 머무니, 머문'으로 활

용하는 일이 가능합니다. 그 이유는 '머물다'는 어간 말음이 'ㄹ'이므로 '날다, 길다'와 같이 '-는, -(으)니, -(으)ㄴ'이 연결되면 어간 말음 'ㄹ'이 탈락하는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어미 '-어'가 결합한 '*머물어'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그러나 용언의 모든 준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 '외우다/외다'는 본말과 준말의 관계에 있지만 두 말에는 모든 어미가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.

“외우어(외워), 외우었다(외웠다), 외우니, 외우고, 외운/외어, 외었다, 외니, 외고, 윈.”

그러므로 문의하신 문장은 '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'와 같이 쓰셔야 합니다.

(정호성)